

**행복한 책 읽기**

후쿠오카 켄세이 '숨겨진 풍경' <달팽이 >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어두운 현실, 음습한 인권 무시, 더러운 폐기물 등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추고, 인공의 미와 선으로 주위를 장식하려고 한다. - 우치하시 카츠토



마이니치신문에 기고되었던 연재기사를 주로 엮은 이 책은 인간의 변심으로 버려진 애완동물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와 인간의 입맛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인간의 자살과 관련된 유서를 다루고 있다. 얼핏 보면 이 책은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을 자처가 아니라, 죽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다.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이 있기에 삶도 존재한다. 생명의 순환인 것이다. 그러

그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감정입이 쉽기 때문이다. 닭고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병아리 때부터 자기가 키웠던 닭의 죽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기를 거부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현대를 배제와 은폐의 프로세스가 거의 완성된 시기라고 한다. 예전에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직접보거나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현대는 화폐경제로 인해 모든 것들이

**'죽음'이 있어 '생명'은 빛이 난다**

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아예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려고 한다. 그러한 심리는 우리의 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엘리베이터의 층을 나타내는 버튼에 죽음을 상징하는 4라는 숫자 대신에 영어로 F라고 표시한 곳이 많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4라는 숫자를 빼버린 곳도 있다. 분명 4층인데도 5층이라고 쓰인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죽음을 두려워하다보니 죽음과 관련된 시설을 혐오하고,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천시한다.

인간은 죽음을 당하는 동물을 보면서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을 빼앗기는 상대가 인간과 가까울수록

분위화되면서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혹자는 보기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곳을 피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이 교묘하게 숨겨진 사회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을 보면 그 잔인함에 감쪽 놀라게 된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렇게 아픈 줄은 몰랐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가해학생의 태도이다. 이는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기동물을 안락사하는 곳, 식용동물을 처리하는 곳 등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다루어야 하는 곳을 혐오시설처럼 외면하는 인간에게 저자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직시할 때 비로소 생명의 빛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나정 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소설 당선자

**관람객은 썰렁... 갤러리는 텅텅...**

**광주 예술의 거리 '예술'이 사라진다**

**비싼 임대료에 대관 안되고 미술학원도 문닫아**

"예산을 쏟아 부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12일 오후 찾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봄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전시를 보기 위해 거리를 오가는 사람보다 가게 앞을 막고 선 차량이 더 많은 정도로 한산했다.

1년 전 카페와 갤러리로 쓰였던 건물은 아직까지 텅텅 비어 있었다. 맞은편 건물 1층 20여 평 남짓한 공간에도 '임대'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소원도 넘어 눈에 들어왔다.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발걸음을 옮기자 건물 층수와 평수를 적은 A4용지들이 건물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그림을 소원도에 걸어놓은 주위 화랑의 모습과는 상반된 느낌을 줬다. 일부 건물은 아예 서터를 내려놓기도 했고 2~3층이 모두 빈 건물도 있었다.

이날 현재 예술의 거리에서 임대되지 않고 있는 공간은 10곳이 넘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공간이 나오자마자 문의가 잇따르던 모습과는 상반된다"는 것이 예술의거리변경회장 안철환씨의 이야기다.

일부 갤러리가 IMF때보다 더 어려

워진 미술경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예술의 거리를 떠나면서부터 이 같은 현상이 시작됐다.

작가들의 대관 요청은 들어오지 않고, 전시를 하더라도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1층 공간의 경우 전세가 가격이 1평당 500만~600만 원 선에 이른다.

갤러리들도 봄을 맞아 한창 전시를 열기에 바빠야 할 시기지만 몇 곳을 제외하고는 소장품전을 여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미술의 거리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던 미술학원들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술의 거리를 떠났다. 이 때문에 2~3층 공간들이 한꺼번에 텅텅 비었다. 미대 지방생도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곳 상인들의 이야기다.

지난 2011년 말 예술의 거리로 추가 지정,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간판과 보도 블록을 정비한 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수억 원을 들여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는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건물 곳곳에 '임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들이 눈에 띄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만 거리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술품 야외경매, 공연, 거리 미술, 아트 마켓 등의 행사를 해왔지만 경매 이외에는 시민들의 참여도, 상인들의 관심도 모두 떨어지지 못했다.

지난 1월 열린 '거버넌스를 통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도 이 같은 지적들이 있었다. 더구나 올

해는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인들도 예술의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공연·행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환 회장은 "상인들의 공감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당장 3월이 한창 지났지만 올해 정확한 사업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의 거리 상인들 스스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상인은 "이곳에서 수십여 년을 살아오고 있지만 정작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며 "예술의 거리에서 감동, 감성, 예술성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미술대전 출품작 공모**

제26회 광주시미술대전 원서교부가 오는 5월10일까지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시지회에서 교부된다.

출품부문은 한국화(민화포함),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서예, 건축, 판화, 문인화, 디자인, 미디어 등이다.

작품은 5월9~10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접수하며 심사결과는 5월14일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 홈페이지(www.gwangjuart.org)를 통해 발표한다.

대상은 부문별 각 1명이 선정되며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부문별 최우수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5월29일 진행되며 입상작은 5월29일~6월2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전시된다. 문의 062-222-8053. /김경민기자 kki@

**그윽한 꽃향기 봄을 맞이하다**

'오견규-봄꽃에 머물다' 26일까지 갤러리GMA

막 붙어오기 시작하는 봄바람에 동백이 빙글기 시작했다. 겨우내 먼지를 뒤집어쓴 화분의 꽃도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고 있다. 그리고 어느새 찾아온 봄을 진한 목향과 그윽한 매화향이 감싼다.

광주시립미술관 갤러리GMA는 13~26일 기획초대 '오견규-봄꽃에 머물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목운 오견규 화백의 '선운사 동백' '코끼리와 돌부

처' '관폭도' 등 최근작 22점이 전시된다.

오 화백은 이번 작품에 꽃, 나무, 잡초, 개 등 생명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담았다.

그는 목의 농담과 긴밀한 필의 움직임, 담백한 화면구성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경쾌하게 담아냈다.

오견규 화백은 "자연은 큰 스승이자 친구다"며 "자연에서 배운 생명존중과 삶의 교훈을 일상과 창작



'선운사의 목련'

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화백은 아산 조방원 선생에게 사사 받았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을 역임했고 2011년 광주시문화예술포럼, 제1회 대동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개막행사는 13일 오후 5시 열린다. 문의 02-725-004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면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